

“쪼개기 근로 양산 ‘주휴수당’ 폐지를… 최저임금 개편 절실”

소공연-민주당, 민생경제 간담회

이재명 대표 “소상공인 매출 급감할 수 있는 일 찾아 최선 다할 것”

민주당 조승래 “논쟁적 이슈보다 경제 전체 살릴 주제에 힘 모아야”

소상공인연계와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과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공동 발굴키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하기로 했다.

다만 소상공인연계가 제안한 주휴수당 폐지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이 엇갈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연합회 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참석했다. 당초 간담회는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측에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인사말에서 “요즘 경기가 나쁠 뿐만 아니라 민생 현장이나 골목상권이 워낙 나빠져 얼굴 들고 다니기 민망하다”고 운을 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소상공인을 비롯해 서민들 빛이 엄청 늘었고 국가경



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연합회 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앞줄 3번째부터)송치영 소공연 회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공연

제까지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금이라도 방향전환을 하면되는데 (정부는)얼마안되는 추경조차도 못하겠다고 하고 있다. 산불 관련 예산도 3조6500억원은 국회 의결없이 정부가 결정해 당장 쓸 수 있다. 그런데 산불 재난 극복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산불 재난 관련 추경 10조원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게 거짓말이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앞서 35조원 규모의 슈퍼추경안을 제안한 바 있다. 정부가 내놓은 10조원 규모 추경은 산불 대응과 내수진작 등을 추진하는 데 있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 대표는 “소상공인분들 일선에서 매출이 현저하게 줄고 있다고 하는 등 큰일이다. 모두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면 좋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최선을 다해 찾아보겠다”고 전했다.

소공연은 이날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및 거점 소상공인복지센터 설립 ▲최저임금에 대한 제도개선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소상공인 화재공제 가입 범위 확대 ▲소상공인 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신용·체크카드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면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관리비) 개정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무기한 적용 유예 등의 내용을 건의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최저임금은 한해도 거르지 않고 오르지만 한다. 15시간 이상 고용 시 주휴수당을 주는 현재 제도 때문에 주당 14시간까지 초단시간 근로자가 크게 늘었다. 일본은 1990년에 이미 주휴수당 제도를 폐지했다. 소상공인과 취약 근로자 모두 불행한 ‘쪼개기 근로’를 양산하는 주휴수당은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아울러 “취약 근로자, 영세

소상공인도 공존할 수 있는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비롯한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직후 한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폐지 등과 같은 노동계와 소상공인 사이의 논쟁적 이슈를 본격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제기해 갈등 요소가 되는 것보다 소상공인과 국가 경제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주제를 찾아 힘을 모으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업계가 제기한 추경과 관련해 구체적인 규모 등 진전된 대화는 없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추경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보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정말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들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 이 대표와 조승래 수석대변인,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홍근·김원아·오세희·남인순·이해식·김태선 의원이 참석했다. 소공연에선 송 회장을 비롯해, 임수택 수석부회장(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장), 임보란 대한문신사회중앙회장, 이봉승 한국주요리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권혁환 한국피부미용협동조합 이사 등이 참석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소득 적을수록 체감물가 상승률 더 높다

한경협, 소득분위별 체감물가 분석 10년간 1분위 상승률 23.2% 달해 4분위 20.9%, 5분위 20.6% 수준

최근 10년간(2014년~2024년) 소비자 체감물가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일수록 체감물가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출 비중이 높은 식품 품 체감물가가 전체 물가상승률의 2배에 달해 저소득층의 부담을 가중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한경협)는 2일 최근 10년간 소득분위별 소비자 체감물가 상승률 추이를 분석한 결과 ▲1분위

23.2% ▲2분위 22.4% ▲3분위 21.7% ▲4분위 20.9% ▲5분위 20.6%로 나타났다. 1분위는 소득 수준이 가장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 중 2022년을 제외하고 1분위의 체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분위보다 매년 높았다.

소득 1분위는 식료품·비주류음료(20.9%), 주택·수도·광열(20.0%), 보건(12.6%) 등 생존과 직결된 영역에 지출이 집중돼 있었다. 특히 10년간 식료품 물가는 41.9% 상승해 같은 기간 전체 물가상승률 21.2%의 약 2배에 달했다.

반면 소득 5분위는 교통(13.0%), 교육(10.5%), 오락·문화(9.0%) 순으로 지출 비중이 높았다. 해당 품목의 물가 상승률은 각각 5.3%, 10.6%, 9.2%로 전체 물가상승률(21.2%)을 크게 밑돌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10년간 먹거리 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취약계층의 체감물가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농산물 수입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유통규제를 개선하며 농산물 수입 다변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AK홀딩스 4조 부채에… ‘애경산업’ 매각

애경, 산업 경영권 지분 63.38% 종기기준 단순 지분가치 2426억

애경그룹이 AK홀딩스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계열사 매각에 나섰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애경그룹은 삼정KPMG를 최근 주관사로 선정하고 애경산업 매각 작업에 나섰다. 매각 대상은 AK홀딩스, 애경자산관리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애경산업 경영권 지분 63.38%다. 이날 종가 기준 애경산업 시가총액이 3829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단순 지분가치는 2426억원이다.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과 자산가치 등을 합치면 매각가는 수천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애경산업은 지난해 약 6791억원의 매

출을 달성했다. 부문별로 보면 화장품이 약 60%, 생활용품이 약 40%다. 애경산업은 생활용품 브랜드 케라시스, 화장품 브랜드 루나로 유명하다. 애경그룹은 애경산업 매각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주력 사업을 항공과 화학 등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애경그룹 지주회사인 AK홀딩스의 총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약 4조원에 달한다. AK홀딩스의 부채 비율은 연결 기준 2020년 233.9%에서 2024년 328.7%로 뛰었다.

특히 AK홀딩스가 자금 조달을 위해 계열사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지난해 말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해 계열사 주가가 동반 하락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AK홀딩스와 애경자산관리가 보유



애경산업 전경. /애경산업

한 애경산업 지분 63.16%과 제주항공 지분 53.59% 대부분이 담보로 잡혀있는데다 만일 주가가 더 떨어지게 되면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이 들어올 수 있다.

애경그룹은 골프장 중부CC 등 비주력 사업도 정리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산불 피해농가 지원에 4000억 이상 투입”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전기 등 상반기 중 공공요금 동결”

정부가 산불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 4000억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공공요금은 상반기 중 동결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산불 피해와 관련 “피해 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주택과 전력·수도 등 필수 인프라를 신속히 복구하겠다”며 “각 부처와 공공기관, 기업들도 관련 지역에서 다양한 행사를 열어 일상회복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11개 시·군에서 발생했고, 농업분야 피해는 경북지역 5개 시·군에 집중됐다. 지난 달 30일 기준 경북 지역의 경우 산불로 농작물 3414ha(과수 3284ha·기타 130h



a)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설하우스 364동, 부대시설 1110동, 농기계 5506대, 축사 212동, 돼지 2만5000마리, 닭 17만4000마리, 유통·가공시설 7개소 등에도 피해가 발생했다.

최 부총리는 산불에 따른 농산물 수급과 가격 영향을 최소화하고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재원을 조속히 투입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정예산 등을 활용해 설비·시설 복구, 사료구매,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에 4000억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조사 완료 즉시 농작물·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피해 농가가 원할 경우 재해보험금 50%를 선지급한다. 또 소실된 농기계와 농기재물을 무상 또는 할인 가격으로 공급하고, 세금과 전기통신 요금, 4대 보험료 등을 감면·유예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유상증자 3000억 ‘무인기 사업’ 투자

>> 1면 ‘K-방산 미래먹거리…’서 계속

또한 글로벌 무인기 시장의 경우 오는 2040년까지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 부회장이 미래먹거리로 점찍은 이유다.

한화에어로는 무인기 체계 및 엔진 개발, 시설 구축 등에 75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했다. 한화에어로는 현재 3조6000억원 규모로 유

상증자를 추진 중에 있어 확보한 자금 중 3000억원을 무인기 관련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유증 발표 당시 한화에어로는 “항공엔진 및 엔진부품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무인기용 엔진을 개발할 뿐 아니라 글로벌 무인기 업체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항공엔진 기술의 자립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용 기자 lsy2665@